

7월 공공·민간 주택 수주 회복세…광주·전남은 침체 지속

전년 대비 13.9% 늘어 18조 9000억원…감소세 마침표
건설기성액은 11조 4000억원으로 15개월 연속 감소세
취업자 192만명, 전년비 4.6% 줄어…건설 물가는 안정

전국 건설 수주가 공공·민간 영역에서 모처럼 회복 신호를 나타낸 반면 실제 시공 물량을 뜻하는 건설기성과 고용 지표는 15개월째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공사 물량 감소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지표와 격차가 뚜렷했다. 수주와 기성이 동시에 살아나야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 건설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월간 건설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 수주는 18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 평균보다도 2조 6000억원가량 많은 수준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문별로 공공 수주는 5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0.6%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주택공사 물량이 풀리면서 주택 부문만 2조 9000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토목과 비주택 건축은 각각 39.1%, 27.8%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민간 수주는 1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다. 토목은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지만 재개발·재건축 발주가 활기를

띠며 주택 부문이 41.8% 늘어난 5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공장 등 일부 대형 공장 발주도 민간 건축 수주를 견인했다.

이처럼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발주 확대가 전체 수주 증가를 이끌며 단기간의 경기 반등 기대를 키웠다.

현장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과 고용 지표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7월 건설기성액은 1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공공기성은 1조 9000억원으로 7.8%, 민간기성은 9조 5000억원으로 14.8% 줄었다. 철도·항만·공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수주가 부진했다.

고용 지표 역시 어두웠다.

7월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다. 작년 5월부터 15개월 연속 이

어진 하락세다. 민간 건축공사 부진에 더해 공공 토목공사마저 위축되면서 업계 전반의 고용 충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름철 계절적 공사 물량 축소가 겹치며 단기적 타격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관련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지만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는 각각 0.5%, 0.8% 상승에 그쳤다.

자재별로 일반 철근 가격이 제철소 생산 중단 등 공급 조정 여파로 3.2%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시멘트(-1.7%)와 레미콘(-4.9%)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건설용 중간재와 생산재 가격은 각각 0.1% 감소했다. 이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7월 건설 수주는 공공·민간 모두 주택 수주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양호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건설기성은 공공·민간이 모두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제 경기 회복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건설 수주는 선행지표 성격을 지니지만 기성과 고용이 동행 지표로서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는 당장의 수주 반등에 안도하기보다 장기간 이어지는 기성과 고용 감소를 극복할 구조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회복은 향후 경기 전환을 기대할 만한 신호지만 현재 공사 물량 감소와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실물 경기와는 괴리가 크다"며 "공공 발주 확대가 일정 부분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수 경기 침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월세 대란’ 매달 1조 3921억 나간다…5년 새 2.6배 증가

1인 가구·사회 초년생 빠른 증가

최근 5년 동안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 총액이 2.6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나 사회 초년생이 많이 사는 집 일수록 월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증가·분석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나라 모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는 총 1조 3921억원에 달했다. 2020년 5286억원에서 5년 만에 2.6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월세 부담은 1~2인 가구나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유형별 월세 총액 증가율을 보면 오피스텔은 80% 폭증했고 연립 다세대(빌라) 66%, 아파트 47%, 단독 다가구 31% 순으로 증가했다. 1~2인 가구가 많은 오피스텔과 빌라 거주자의 부담이 가장 커졌다는 의미다.

월세 부담 증가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희망과 직결돼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재운 집토스 대표는 “월세 총액 1조 4000억원

시대는 과거 자산 축적의 발판이었던 전세 제도가 저물고 주거비가 소모성 비용으로 굳어지는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며 “특히 오피스텔과 빌라의 월세 부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사회 초년생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번 수치는 단순히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실제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공무원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소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에서 신규 도로 등록 장면을 보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부동산원 노인일자리 사업

백세밥상 반찬가게 개소식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iM금융그룹과 공동 후원하는 ‘백세밥상 진이찬방 대구상인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백세밥상 진이찬방’은 민·관·공 협업을 통한 창업형 노인 일자리 모델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삶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창업 지원 공모 사업 대구·경북지역 부문에서 선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이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후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 ‘카페 지브라운’, 전국 ‘CU시니어편의



최병삼(왼쪽부터) 달서시니어클럽 관장, 성태은 iM금융그룹 부사장,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변지호 가정복지회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대구시 달서구에서 열린 ‘백세밥상 진이찬방 반찬가게’ 창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점’, 이동식 편의점 등 7개 사업에 총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은 “‘백세밥상 진이찬방’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모델 발굴과 확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토정보공사, 우즈베크 공무원 K-주소 연수

주소 법·체계, 서비스 등 전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적(地籍)정 고위급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주소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K-주소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중 하나로 진행됐다.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연수 기간 한국 주소 체계의 법·제도, 역사, 유형에 대한 이론 지식, 한국 주소 개편 사업, 주소 기반 산업 서비스 제공 등 경험을 전수 받았다.

주소 정보 시스템 구축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구조와 지적·공간 정보와의 맵핑을 통한 정확한 주소 데이터 구축·관리 현황에 관심을 보였다.

조키로프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NSDI개발과장은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된 주소 체계와 효율적인 주소 정보 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소 법·제도 기반 마련과 주소 정보 시스템 구축에 K-주소 체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심병섭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은 “K-주소 체계는 정확한 위치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 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우즈베키스탄의 주소 정보 체계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